

“전남 새로운 100년...마중물 역할하겠다”

오늘 퇴임 윤병대 전남도 정부부지사

기재부 27년 경험 활용 3년간 전남경제 진두지휘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등 미래 성장동력 초석 다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도민과 같이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고향 발전과 전남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갈 성과를 거두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12일 퇴임을 앞둔 윤병대 전남도 정부부시사가 3년여간의 재임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윤 부지사는 기획재정부에서의 27년간 근무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전남의 경제 체질

변화를 위해 분투해왔다. 국비 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 등 마지막까지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8년 8월27일 제12대 전남도 정부부지사로 취임한 후 취임식도 갖지 않은 채 첫 임정으로 지역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 현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정도로 도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지난 7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윤 부지사는 재임 중 전남의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고 전남 경제의 미래를 견인할 비전을 제시, 전남의 경제지도도를 재편했다.

나주시 소재 ㈜정담은 등 3개 기업을 방문해 GS홈쇼핑과 아마존 입점 등 판로 확보의 길을 열어 기업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 소통 중심의 현장형 업무 스타일, 다양한 행정

력발전단지 조성 ▲백신·면역치료 중심의 바이오산업 국가거점 구축 ▲나주 에너지밸리 500개 기업 유치 목표 달성 ▲한국폴리텍대학 전역기술교육센터 나주 유치 등 전남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 성과를 거뒀다.

윤 부지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지만 역대 최대 국비 확보, 경전선 고속전철화 등 SOC 확충,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유치, 나주 에너지밸리 500개 기업유치 등 고향 발전을 위한 값진 성과를 거두게 돼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출신인 윤 부지사는 광주상고와 성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행정고시 36호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임혜민기자

광주·전남총장협의회장에 민영돈 조선훈대 총장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 회장에 민영돈 조선훈대 총장이 선출됐다.

11일 조선훈대에 따르면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7일 조선훈대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21일부터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14대 회장에 민 총장을 선출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학이 당면한 공통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장들은 학생인구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대학의 위기 속에서 대학이 지역과 함께 상생할 방안 강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 총장은 “광주·전남 총장협의회를 통해 각 대학의 의견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협의체로 성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광주·전남지역대학이 함께 협력하고 산·학·연이 함께하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광주장애인체육회-전남대 체육교육학과 협약

광주장애인체육회가 전남대학교와 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인적·시설 교류를 통한 장애인 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최근 전남대 사법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애인 학생들의 장애인 체육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 참여를 통한 산학협력과 유기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장애인체육회와 전남대 체육교육학과 두 기관이 협력해서 추진해나갈 주요협력 분야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사업 공동기획 및 참여

▲교수 및 학생의 현장참여를 통한 산학협력모델 구축 ▲장애인체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서용규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전남대 체육교육학과는 1천명이 넘는 체육교사를 배출했으며 광주·전남 체육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교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에는 현재 102명의 장애인학생이 재학중이다. /박희종기자



목포 산정동 ‘꽃피는 으뜸마을 만들기’ 협약

목포시 산정동과 청정전남 으뜸마을추진단, 주민자치위원회, 문태고 그린티스팀 등은 최근 행복마을1번지 꽃피는 산정동 으뜸마을 조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종식 목포시장, 박태현 문태고 교장, 그린티스팀 학생, 산정동 으뜸마을 추진단, 산정동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마을 경관 개선과 상호 자원봉사 등을 위한 단계 간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꽃피는 산정동 만들기 사업은 2021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교회-

신안아파트 계단길에 장미터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임태현 산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과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산정동 만들기 앞장서줘 감사드린다”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정동은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10월 말 문태고 학생들과 산정동 주민자치위원, 주민들이 힘을 합쳐 장미 계단 꽃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기자



윤흥현 대광영고 교장 ‘한국인의 밥상’ 출연

대광영고 윤흥현 교장이 지난 7일 KBS ‘한국인의 밥상’에 출연해 화제다.

11일 대광영고에 따르면 윤 교장은 ‘한국인의 밥상’ 531회 ‘위풍당당 아버지의 앞치마’편에 출연해 가정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학교 학생들에게 자상한 만큼 가정에서도 훌륭한 요리 솜씨를 자랑했다. 윤 교장은 어렸을 때 부엌에서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즐거웠던 기억 덕분에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방송을 통해 윤 교장은 본인의 아시작 고추장 볶음을 직접 요리했다. 고추장볶음은 연암 박지원이 일찍이 삼재(喪妻)하고 자녀들에게 손수 만들어 보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윤 교장은 이 외에도 두부전골에 소고기 완자까지 준비하는 모습 등을 통해 부엌에서 요리하는 남자의 자부심을 보여줬다.

윤흥현 교장은 “부엌에서 요리하는 남자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기 위해 방송 출연에 응했다”며 “가정의 화목을 지키고 부엌일에 남자가 따르겠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와 (재)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 광주형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 제4기 수료식’이 최근 조선이공대 기공홀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광주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CEO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통시장 협회등, 광주맛집, 광주7미 선정업체 등 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50시간의 교육과정 이수 후 수료식이 개최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해 진행됐으며, 수업 후 세미나, 업체별 개별 멘토링, 참여업체 방문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및 현장 지원을 실시해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임재만기자

송지현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 학과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광주형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지역 프랜차이즈 CEO, 광주맛집, 광주7미, 전통시장 협회등 대표들의 프랜차이즈 사업 및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활동과 정보교류를 통해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호남지역 유일의 프랜차이즈 전문학과인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는 2018년 전국 전문대학 창업자수 2위 달성에 기여했으며, 본 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설립 14개, 브랜드 25개, 직·가맹점 300개, 일자리 창출 기여 1천100명을 달성했다. /임재만기자



호남대 뷰티미용학과 ‘제15회 졸업작품전’ 개최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학과장 전현진)는 최근 IT스퀘어 1층 강당에서 박상철 총장과 학과 교수진, 4학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Are-en-ciel’을 주제로 제15회 졸업작품전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작품전에는 졸업을 앞둔 41명의 학생들이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화장품 등 5개 분야 전공으로 나눠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과 역량을 열정과 함께 녹여낸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졸업작품전 주제인 ‘Are-en-ciel’은 프랑스어로 ‘다채로운’, ‘무지개’라는 의미로 4년 동안 배운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다채롭고 창의적인 졸업작품을 제작하고, 졸업 후 각자의 개성

과 컬러를 지닌 뷰티전문가가 되자! 나만의 뷰티 브랜드를 만들자! 라는 각오가 담겨 있다.

전현진 학과장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했던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함께 해준 학과 교수진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학생들에게 이번 졸업작품전이 사회에 진출해 아름다운 뷰티선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는 지난 2004년 학과 개설 이래 16년간 임용고시, 교수진, 미용전문경영인 미용기능장 등 뷰티산업 진출과 국제 및 전국 미용경진대회에서 다수의 우승자를 비롯한 우수 인력을 배출하는 등 창의융합형 뷰티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임재만기자

목포소방서, 의료인 대상 소방안전 체험 교육

목포소방서는 11일 “최근 목포 미르치과 직원 9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코로나19 정황에 따라 인원을 분산해 진행됐으며 ▲심폐소생술 ▲생활 속 응급처치 ▲소화 설비 사용법 ▲소방시설 관리 요령 ▲화재 시 대피 유도 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 장비를 직접 착용하고 병원 내부를 걸어보며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 가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박원국 목포소방서장은 “의료인기에 위급상황 시 대처 방법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



각되지만 워크숍을 통해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 기억에 되새기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동강대 학생상담센터 ‘찾아가는 마인드마켓’ 운영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기부 문화의 참 뜻을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동강대 학생상담센터(센터장 나현주)는 최근 동강생활관 1층에서 기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인드 마켓(MIND MARKET)’ 행사를 개최했다. ‘마인드 마켓’은 동강대 학생과 교직원들이 기부를 통해 나눔의 미덕을 배우도록 지난 2017년 하반기 개소식을 갖고 2018년 3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동강대 구성원들은 자신이 안 쓰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기부하고 또 필요한 제품을 가져가는 학생과 교직원은 성의를 표시하며 모두가 기부자가 된다. 그동안 모금액은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사용됐다.

나현주 센터장은 “동강대 학생들이 나눔의 장을 통해 기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인드 마켓 등 다양한 인성함양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전국초 ‘지구 지키는 환경 캠페인’ 행사

전국초 6학년 학생들이 최근 ‘지구를 지키는 나도 약속 환경 캠페인’을 개최했다.

11일 전국초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환경영양과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6학년 학생들은 ‘지구를 지키는 12가지 약속’을 선정해 전국초 전체 학생들이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6학년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배우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위해 개인과 사회가 실천할 것들을 토의하던 중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청소년들이 환경운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 6학년 학생들은 졸업 전 지구환경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로 뜻을 모아 이번 캠페인을 개최했다. /임재만기자

결혼

●전용준(광남일보 회장)·김재희(광남문화체육재단 이사장)씨 아들 성모근(㈜엔아이에스 대표). 김희기·이순현씨 딸 영미양(삼성전자 미래전략사업부)=16일(토) 오후 3시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성당(광주 서구 삼우대로 980) *축하해주시는 마음으로 축의금은 대신하겠습니다.

부음

●정홍근씨 별세, 김영록(전남지사)씨 장인상=발인 13일(수) 오전 6시50분 서울 성모병원장례식장 10호실 (02-2258-5940)